

## Difficult Case in Thyroid Surger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장      향      석

**서    론 :** 분화 갑상선암은 주로 갑상선에 국한된 형태로 나타나며, 갑상선 절제만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화 갑상선암의 국소침윤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환자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완벽한 국소절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소 진행성 갑상선암에서 절제 가능성 여부와 절제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실정이나, 광범위한 절제를 통해 국소치료 효과, 증상완화, 무증상 기간의 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보고들이 많다. 국소진행성 갑상선암은 원격전이를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치료의 원칙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저자들은 최근 경부의 중요기관을 침습하고, 종격동부의 중요 혈관을 침범하였으며, 다발성 원격전이를 보인 재발성 갑상선 여포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    례 :** 63세 여자가 갑상선 수술후 추적검사서 재발이 의심되어 연세대의 영동세브란스병원 외과에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11개월 전 국소진행성 갑상선 여포암으로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당시 국소 침습으로 반회후두신경 절제, 식도와 기관의 면도식 절제술을 동반하였다. 수술후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였으나 개인 핵의학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만 받고 시행치 않았다 한다. 영상의학 검사상 갑상선 수술부위와 식도 및 기

관 부위에 재발이 발견되었고, 일부 부위에서는 침습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전상 종격동 부위에서 국소 진행성 암종이 우측 내경정맥, 무명정맥, 상대정맥을 침범한 소견을 보이고 상대정맥 내로 중앙혈전이 관찰되었다. 폐에 다발성 전이가 발견되었고, 간의 좌측엽(1, 2분절)에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 세침흡입 검사상 재발과 전이성 갑상선 여포암으로 보고되었다. 수술전 thyroglobulin은 29759.0ng/mL(정상: 0~30)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수술장에서 경부 절개 및 흉골 전절개를 통해 암종의 범위를 확인한 후 재발성 암종에 대한 광범위 절제, 우측 내경정맥, 무명정맥, 상대정맥의 부분 절제 및 중앙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간의 1, 2분절 절제를 시행하였다. 병리학적 검사상 갑상선 여포암의 재발 및 전이로 보고되었다. 수술후 2회의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계획 중이다.

**결    론 :** 국소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에서는 광범위한 절제를 통해 최대한 암을 제거한 뒤 수술 후 보조요법의 활용이 가능해져서 생존 연장뿐만 아니라 질환의 치유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격전이가 동반된 경우에는 완벽한 수술적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병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여 이미 재발과 전이가 확립된 경우에는 치유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처음부터 광범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